

제 44 호 · 2017 년 9 월 6 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  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#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 
KOREA MARITIME INSTITUTE



## 물류동향

### 보스토치니항, 전년대비 석탄수출 증가

-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스토치니항 석탄 수출량은 약 1,360만 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3만 5,000톤 증가함
  - 올 7월에는 47척의 선박을 통해 약 20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으며 10만 톤 이상의 초대형 선박 7척을 수용함
  - 7척의 대형 선박 중 'Star Pauline'의 선적량이 가장 컸으며 본 선에 적재된 석탄 중 최고급 품질의 약 14만 9,100톤의 석탄이 한국시장에 수출됨
  - 추가로 8월 5일 약 1,400만 톤의 석탄을 수출함
- 보스토치니항을 통해 석탄을 수출하기 위해 올해 약 18만 5,500만 대의 화차가 동원되었으며 이 중 약 2만 6,000대의 화차가 7월에 운영됨

#### 보스토치니항에서의 석탄 적재

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6851/>(검색일:2017년 8월 18일)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6851/>(검색일:2017년 8월 18일).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

## ‘캄차트카-부산’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선박 출항

-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페트로파블롭스크-캄차트카의 입주기업인 ‘Terminal Seroglazka (ООО «Терминал Сероглазка»)’사는 캄차트카에서 최초로 국제 컨테이너선을 출항함
  - ‘MCC Transport’사(Maersk Line 계열사)의 ‘Papa Mau’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‘부산 (한국)-페트로파블롭스크-캄차트카(러시아)’라인을 시범 운항 하기 위함
  - 이번 운항은 캄차트카에서 출항하는 최초 국제 컨테이너선 운항라인으로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우회하여 바로 한국으로 입항함
- 캄차트카 지역 대표자들은 예전부터 캄차트카 수산 기업들이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화물을 환적하는 것을 어려워 국제 직항 노선이 필요했었다고 함
  - 시범운항을 통해 이번 노선이 정기노선이 될 경우 많은 캄차트카 기업들이 국제 컨테이너 선박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함
- 8월 11일 컨테이너 선박이 캄차트카로 입항했으며 40ft 냉장 공컨테이너 300개와 수산물을 실은 40ft 냉장 컨테이너 125개를 선적함
  - 컨테이너선에 적재된 약 3,250톤의 냉동 수산물은 한국의 수산물 시장에 공급될 것임
  - 또한 냉동창고 건설 외에도 수산물 등을 선적하기 위해 항만 하역능력을 확대하고 선적 및 하역을 위한 추가적인 부두 장비 등을 계속해서 보완, 설치할 예정임
- 이와 같이 캄차트카 항만 시설 및 해상 운송 시스템의 발전, 국제 컨테이너 선박 라인의 개설은 캄차트카 수산물의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캄차트카 수산기업들의 국제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  - 또한 이번과 같은 새로운 물류라인 개발은 수산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6860/>(검색일:2017년 8월 18일).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



## 플류이슈

###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현황 및 전망

####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현황

- 예고르 보리소프 사하공화국 대통령은 칸갈라스 화학·건설 산업단지가 2018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발표함
- 8월 칸갈라스 산업단지 내 가스 및 전기 공급을 위해 “야쿠츠에네르고”, “사하트란스네프 테가즈”와 계약을 체결해 인프라 완공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
- 현재 칸갈라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총 10개로, 2020년까지 총 21억 루블을 투자할 계획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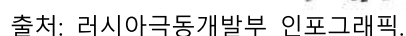
#### <칸갈라스 화학·건설 산업단지>



출처: <http://yakutiamedia.ru/news/612761/>

-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의 인프라 공사는 85% 완공됨
- 도로건설, 통신 설비,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관련 건설 프로젝트 133개 중 111개가 완공됨
- 나제진스카야 지역을 수산물 생산과 최첨단 배수기 및 온난방 장비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약 15억 루블이 예산으로 책정되었음

- ### <선도개발구역 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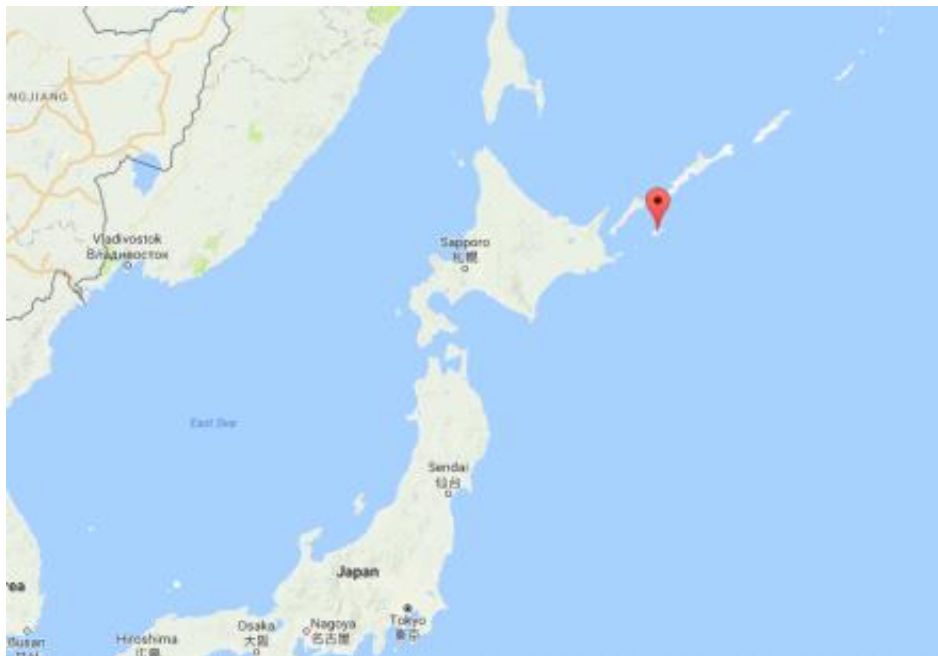




### 남쿠릴열도,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

-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남쿠릴열도를 선도개발구역으로 설치하는 총리령에 서명했음
- 쿠릴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시코탄을 경제특구 성격의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함
- 사할린 주 정부는 수산물가공업체 '오스트로브니'가 약 74억 루블을 투자해 시코탄 선도개발 구역에 수산물 가공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힘
- 이 업체는 올해 부두 시설 개보수, 수심 확장 사업 등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, 약 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음
-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"쿠릴 선도개발구역은 수산업 관련 프로젝트 뿐 아니라 에너지자원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며, 현재 일본과 공동경제활동을 위한 법적, 제도적 환경을 조성 중에 있지만, 이 논의에서 쿠릴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. 쿠릴 선도개발구역 지정은 러시아 투자자들이 깊은 관심을 표함과 동시에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가능했다"고 설명했음

### <시코탄 선도개발구역>



출처: 구글지도.



- 작년 12월 러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방영토 반환을 위해 공동경제활동을 제안한 바 있음
- 반면, 푸틴 대통령은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, 러시아 영토라고 주장하고, 북방영토인 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르 섬에 '발 미사일'과 '바스티온 미사일' 부대를 배치시켜 군사기지화 했음
- 또한 2016-2020년 쿠릴열도 사회경제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요건을 완비했음

#### 모노시티(monocity), 선도개발구역 지정 예상

- 그 외에도 러시아 경제발전부 위원회는 총 11개의 도시를 새로운 선도개발구역으로 승격시켰음
- 전문가들은 1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, 최소 170개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함
- 위원회에서 선도개발구역으로 승격시킨 도시는 자린스크(알타이 공화국), 세르돕스크(펜젠스키 지역), 콘도포쥐스키(카렐리야 지방), 달마토보(쿠르간스크), 사얀스크(사하 공화국), 카나수(추바시), 피칼료보(레닌그라드), 제레노돌스크(타타르스탄), 치스토폴레(타타르스탄), 바트스키에 폴라니(키로브), 니지네캄스크(타타르스탄) 등 총 11개이다.
- 특히 사얀스크는 8월 러시아 경제발전부로부터 선도개발구역으로 승인 받아 메드베데프 총리의 서명 절차만 남겨 놓고 있음

#### 선도개발구역의 한계점<sup>1)</sup>

- 극동지역에 계속해서 선도개발구역을 지정한다면, 중복 및 과잉 문제가 생길 수 있음
-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인프라 예산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어, 해외기업의 유치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<sup>2)</sup>
-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은 극동개발부가 극동개발공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모노시티 내 선도개발구역은 경제개발부의 관리를 받는 이원적 구조임에 따라 관리 효율성 문제가 생길 수 있음

1) 변현섭·한홍열, “러시아 특별경제구역(SEZ)의 문제점과 개선방향: 선도개발구역(ADT)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,” 「슬라브 학회지」, 제33권 제1호, 2017, pp.61-65.

2) Потенко Людмила Ивановна, “Проблемы формирования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,” Владивосток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экономики и сервиса (Владивосток, Россия, 2015), p.103.





### 결론3)

- 선도개발구역은 특별경제구역과 달리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기업체의 활동 영역이 광범위하며, 세제 특혜 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투자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음
- 그러나 현재 극동지역에 지정된 선도개발구역은 총 17개로, 이미 포화 상태임을 인지하여 비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, 행정서비스 제공 미흡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임
  - 즉 새로운 선도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 이미 지정된 선도개발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함
- 운영 효율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과 권한 분담을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함
  - 선도개발구역의 운영 효율성 평가를 통해 중앙정부 지원금 확대 등과 같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함
  - 관리회사에게 개발 사업 및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전권을 부여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명문화가 필요함

자료: <https://www.kp.ru/daily/26721/3747346/> (검색일: 2017년 9월 1일)

<http://yakutiamedia.ru/news/612761/> (검색일: 2007년 9월 4일)

<http://primamedia.ru/news/611850/> (검색일: 2017년 9월 4일)

<http://tass.ru/vef-2017/articles/4528915> (검색일: 2017년 9월 5일)

<http://tass.ru/vef-2017/articles/4532282> (검색일: 2017년 9월 6일)

김엄지 연구원

051-797-4776, umjikim@kmi.re.kr

3) 변현섭, “러시아 극동지역개발 전략으로서 선도경제구역 설립의 의미와 전망,” 「슬라브 학회지」, 제30권 제4호, 2014, pp.71-72.